

독자성과 융화성: 인간 실존의 근원적인 두 차원

김 윤 영 이 예 은 주 민 주 박 유 빈 박 선 응[†]

고려대학교

독자성과 융화성은 최근 10년 동안 3개의 학술지에서 관련 특집호가 출간되는 등 해외에서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이나, 국내에서는 그 개념조차 제대로 소개가 되지 않은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Big Two라 불리며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양산해 온 이 두 개념에 관련된 연구를 체계적으로 개관하였다. 먼저, 독자성과 융화성이 어떤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는지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독자성과 융화성이 정신 및 신체적 건강, 사회적 관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경직성이라는 개념이 포함된 연구와 포함되지 않은 연구를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또 독자성과 융화성 연구의 또 다른 형태인 내러티브 연구에 대한 설명과 관련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내러티브 연구는 독자성과 융화성 간의 통합이 사람들의 심리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독자성과 융화성을 개인차 변인이 아닌 사회적 지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이중관점 모델이 대두되었는데, 이는 사회적 정보처리의 모든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위자와 관찰자 사이의 관점 차이를 독자성과 융화성 개념과 연결 지어 설명한 것으로서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과 관련 연구들도 함께 개관하였다. 마지막으로, 독자성과 융화성에 관한 국내 연구 현황을 요약하고,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독자성, 융화성, Big Two, 내러티브, 이중관점 모델

[†] 교신저자: 박선응,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Tel: 02-3290-2868, E-mail: sunwpark@korea.ac.kr

‘공부는 못하지만 친구들과 사이는 좋다’거나 ‘일은 잘하지만 조금 차갑다’라는 식의 이분법적인 구분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표현이다. 자기 자신, 다른 사람, 나아가 사회 조직을 묘사하는 데에도 사용되는 이러한 이분법은 혹자에 따르면 2000년 이상 존재해왔던 구분법이다(McAdams, 1988; Wiggins, 1991). 심리학 내에서도 이러한 구분에 대한 연구는 지난 수십 년 간 이루어져 왔고, 특히 최근 들어 이 개념은 “Big Two”라 불리며 많은 조명을 받고 있다(Abele & Wojciszke, 2013).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듯, 2010년 독일에서는 독자성과 융화성을 주제로 한 학회가 열렸으며, 2008년에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013년에 *Social Psychology*, 2014년에 *Polish Psychological Bulletin*에서 독자성과 융화성에 관한 특집호가 출판되기도 하였다.

독자성(agency)과 융화성(communion)은 Bakan(1966)이 제시한 인간 실존의 근원적인 두 가지 차원으로, 독자성은 독립적인 개인으로서의 탁월성을, 융화성은 타인 혹은 공동체와의 유대를 가리킨다. 독자성과 융화성은 성격심리, 사회심리, 건강심리, 동기, 대인관계에서의 행동, 비교문화 등 심리학 내의 서로 다른 연구 분야들을 통합하는 데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임상심리나 산업 및 조직 심리와 같은 응용심리분야의 여러 주제들과도 많은 연관성이 있다. 하지만, 독자성과 융화성이 갖는 잠재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이 개념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독자성과 융화성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관련된 연구를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념적 정의 및 개념들 사이의 관계

Bakan(1966)은 그의 저서에서 독자성을 “개체로서의 유기체의 실존,” 융화성을 “개체가 속해 있는 보다 큰 유기체로의 참여”라고 정의한다(15쪽). 다시 말해, 독자성은 남들과 구분되는 개인으로서의 독립성을 의미하고, 융화성은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 및 사회와의 관계성을 의미한다. 독자성은 자기 주변의 환경을 지배하고 자기주장을 확고히 하며 자신의 성취와 능력 및 권력을 추구하는 노력으로 드러나는 반면, 융화성은 다른 사람들과 친근한 관계를 맺고 협력하며 동화되려는 노력으로 드러난다. 그 결과 독자성이 높은 사람은 개인이 이룬 업적과 자립, 그리고 분리에서 성취를 경험하지만 융화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와 소속감에서 성취를 경험한다(Guisinger & Blatt, 1994). 두 개념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되었으나 이후 연구자들은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성별에 대한 불필요한 고정관념을 양산할 뿐이며 이 두 가지 개념이 실제로 나타내는 것은 독자성과 융화성이라고 주장하였다(Helgeson, 1994; Spence, 1984).

이처럼 인간의 삶을 두 가지 차원으로 이해하고자 했던 시도는 많았다. 지난 60년 동안, 다양한 심리학 분야의 연구자들은 이와 유사한 두 종류의 도식을 권력동기와 친밀동기(McAdams, 1988), 도구성과 표현성(Parsons & Bales, 1955), 앞서 가기와 함께 가기(Hogan, 1983),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Markus & Kitayama, 1991), 영웅편향과 성자편향(Paulhus & John, 1998), 자아시스템과 환경시스템(Crocker, 2008), 능력과 따뜻함(Fiske, Cuddy,

& Glick, 2007) 등 여러 가지 다른 명칭으로 상정해왔다. Abele과 Wojciszke(2014)는 이렇듯 성격, 지각, 동기 등 다양한 맥락에서 다른 이름으로 연구되어 온 이분법적 도식들이 공유하고 있는 핵심 개념을 강조하며, 이들이 독자성과 융화성이라는 기본적인 두 차원으로 수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독자성과 융화성과 더불어 각각의 극단적 형태인 경직된 독자성(unmitigated agency)과 경직된 융화성(unmitigated communion)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Bakan, 1966; Helgeson, 1994). 경직된 독자성이란 독자에게만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타인을 배제하고 오직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하고, 경직된 융화성이란 타인을 위해 자신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융화성에 의해 완화되지 않은 경직된 독자성은 개인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며, 개인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융화성 역시 독자에게 의해 완화되어야 한다(Helgeson & Fritz, 1999, 2000).

한편, Helgeson(1994)은 경직된 독자성이 단순히 높은 독자성과 낮은 융화성의 조합이 아니며, 경직된 융화성 역시 단순히 높은 융화성과 낮은 독자성의 조합과는 다른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즉, 이 둘은 다른 한 성격특성을 완전히 배제한 극단적 형태의 성격적 특성이란 것이다. 따라서 독자성, 융화성, 경직된 독자성과 경직된 융화성은 모두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며, Helmreich, Spence와 Wilhelm(1981)는 각각의 개념을 측정함에 있어 독립적인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경직된 독자성은 자신에 대한 몰입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관심의 결여, 혹은 부정적인 태도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독자성과는 구분된다(Helgeson & Fritz, 2000). Helgeson과 Fritz

(1999)의 연구에서 경직된 독자성과 독자성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대인관계 및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된 여러 변인과의 관계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독자성은 높은 자존감 및 낮은 불안감, 우울감과 상관을 보인 반면, 경직된 독자성은 타인과의 부정적인 상호작용 및 낮은 자존감, 높은 적대감과 상관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경직된 융화성과 융화성 또한 정적상관을 보이지만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 그리고 대인관계에서의 행동에서 차이점을 드러낸다. 경직된 융화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며 자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외적 기준을 적용한다(Fritz & Helgeson, 1998). 다시 말해, 이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은 자존감이 낮으며 자신을 보는 타인의 시선에 의해 자존감이 결정된다. 이는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선에서 타인에게 관심을 갖는 융화성과는 구분되고, 그런 점에서 타인에 대한 과도한 몰입과 자기방치는 융화성과 경직된 융화성을 나누는 특징으로 규정되기도 한다(Helgeson & Fritz, 1998).

측정 도구

성격으로서의 독자성 및 융화성 척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자성과 융화성에 대한 연구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를 이용하여 이루어져 왔다. 남성성과 여성성을 측정하는 데 널리 사용되어 온 성격측정도구는 Bem Sex Role Inventory (BSRI; Bem, 1974)와 Personal Attributes Questionnaire(PAQ; Spence, Helmreich, & Stapp, 1974)이다. 두 척도에서 남성성 문항들은 주로

자기주장적인 특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성성 문항들은 주로 대인관계에 관련된 특성들을 포함하고 있다. BSRI는 남성성 20문항(예, 공격적인, 분석적인, 경쟁심이 강한), 여성성 20문항(예, 상냥한, 남을 잘 믿는, 수줍음 많은), 그리고 척도의 본래 목적을 숨기기 위해 고안된 성별 중립적인 20문항(예, 관습적인, 정직한, 성실한)의 총 60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응답자들로 하여금 각 문항에 제시된 성격 특성과 관련된 단어들에 자신을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한다.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응답자의 성역할 정체감을 남성성, 여성성, 두 가지가 모두 높은 양성성(androgyne), 그리고 두 가지가 모두 낮은 미분화(undifferentiated)로 구분한다.

PAQ는 총 24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자들은 남성성과 여성성 개념에 기반을 두고 척도를 개발하였지만, 그 내용은 Bakan(1966)의 독자성과 융화성의 구분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Spence, Helmreich, & Stapp, 1975). 응답자들은 성격과 관련된 다양한 형용사나 문구가 제시되는 양극성 문항에 자신의 성격특성이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한다. '전혀 경쟁적이지 않은-매우 경쟁적인,' '전혀 자신감이 없는-매우 자신감이 있는' 등과 같은 문항들은 남성성 척도(M)에 속하며 '전혀 다정하지 않은-매우 다정한'과 '대인관계에서 매우 차가운-대인관계에서 매우 따뜻한' 등의 문항은 여성성 척도(F)에 속한다. 양성성 척도(MF)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혼합 문항인 '전혀 공격적이지 않은-매우 공격적인,' '순종적인-지배적인' 등을 포함한다. 결과를 바탕으로 응답자들은 남성성, 여성성, 그리고 양성성 수준에 따라 구분된다. 하지만 PAQ 양성성 척도의 내적합치도가 만

족스럽지 못할 뿐 아니라 양성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포함할 경우 요인들의 구조가 불분명해진다는 이유로 이 하위 척도의 문항들을 PAQ에서 제외시키기도 한다(Cora & Fekken, 1988; Lippa, 1991; McCreary & Steinberg, 1992; Ward, Thorn, Clements, Dixon, & Sanford, 2006).

앞서 언급했듯이, Bakan(1966)은 독자성과 융화성과 함께 경직성이라는 개념 또한 제시한 바 있다. Spence, Helmreich과 Holahan(1979)은 BSRI와 PAQ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특성만을 반영하는 독자성과 융화성을 측정하는 데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경직된 독자성과 경직된 융화성을 측정할 수 있는 Extended Personal Attributes Questionnaire(EPAQ)를 개발하였다. EPAQ는 경직된 독자성에 대응되는 부정적 측면의 남성성(M-)과 경직된 융화성에 대응되는 부정적 측면의 여성성(F-)을 포함하는 4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치 및 행동으로서의 독자성 및 융화성 척도

많은 연구들이 성격으로서의 독자성과 융화성을 측정하였지만, 가치와 행동 측면에서 독자성과 융화성을 측정한 연구들도 있다. Trapnell과 Paulhus(2012)는 가치에 대한 연구에서 많이 쓰이는 Schwartz Value Survey(Schwartz, 1992)의 문항들 중에서 독자성과 융화성의 기본 정의(Helgeson, 1994)에 맞는 문항들을 발췌하여 24문항으로 구성된 독자성과 융화성 가치 척도(Agentic and Communal Values Scale)를 개발하였다. Buchanan과 Bardi(2015)는 Trapnell과 Paulhus(2012)이 만든 독자성과 융화성 가치 척도 문항 중에서 경직된 독자성 또는 경직된 융화성을 반영하는 문항들을 제외한 나머지 16개의 문항을 사용하여 독자성 가치와 융화

성 가치를 측정하였다. 응답자들은 척도에 제시된 각각의 가치가 그들의 일상적인 삶의 지침으로서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평가하는데, 독자성 가치 문항은 자율성, 성취, 영향력 등의 7개 문항으로, 융화성 가치 문항은 연민, 이타심, 조화 등의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Watts, Messé와 Vallacher(1982) 역시 독자성과 융화성을 가치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이들은 대인관계에서의 가치를 측정하는 Gordon(1960)의 Survey of Interpersonal Value를 수정하여, 독자성과 융화성을 측정하는 문항을 구성하였다.

독자성과 융화성 가치를 표현하는 행동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Buchanan과 Bardi(2015)는 Value-Expressive Behavior Questionnaire(Bardi & Schwartz, 2003)에서 제시된 문항들을 분석하고, 그 중 독자성과 융화성을 나타내는 행동들을 선별하였다. 응답자들은 지난 6개월 간 설문에서 제시된 행동들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를 표시한다. 독자성 행동 문항은 “나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진했다,” 융화성 행동 문항은 “도와 달라는 부탁이 없어도 남을 도와주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타 측정 도구

앞서 언급한 척도들 이외에도 California Adult Q-Sort(CAQ; Block, 1961, 2008)를 이용하여 독자성과 융화성을 측정하기도 한다. CAQ는 성격적, 행동적, 인지적, 그리고 정서적 특징들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 총 100개의 진술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독자성과 융화성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각각 10개씩 추출하여 사용한다(Fanin & Dabbs, 2003; Park &

Colvin, 2014; Vogt & Colvin, 2003). 독자성 문항의 예로는 “개인적 목표가 높고 야심만만하다”와 “생산적이고 맡은 일을 잘 해낸다” 등이 있고 융화성 문항의 예로는 “남에게 호의적이고 배려 있게 행동한다”와 “사교적이고 남과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등이 있다.

한편, Helgeson과 Fritz(1998)는 EPAQ가 경직된 융화성을 측정하고자 하지만, 성격적 특성을 나타내는 단순한 형용사로는 경직된 융화성을 제대로 측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문장 형식으로 구성된 Revised Unmitigated Communion Scale을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나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걱정한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선 다른 사람이 꼭 행복해야 한다,” “나는 다른 사람이 도움을 청할 때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한다” 등의 9개 문장을 포함하고 있다.

신체 및 정신적 건강, 그리고 사회적 관계

경직성 개념이 포함되지 않은 연구: 비밀관적인 결과

독자성 및 융화성에 대한 많은 초기 연구들은 독자성과 융화성이 신체 및 정신적 건강, 또 사회적 관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탐구하였는데(Aubé, 2008; Helgeson, 1994; Helgeson & Fritz, 1999, 2000), 이는 질병의 성차에 관한 특이한 현상에서 기인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사망률(mortality rate)이 높았던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질병률(morbidity rate)이 더 높았던 것이다(Gove, 1984; Verbrugge, 1985). 남성은 여성에 비해 더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 받

고 더 빨리 죽는 반면, 여성은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만성적 질병이나 심리적인 고통을 남성보다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결과는 남녀의 성 역할과 연관된 성격적 특성이 신체 및 정신 건강과 관련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Helgeson, 1994). 이후 남성성과 여성성, 즉 독자성과 융화성이라는 성격적 특성이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구되었으나 그 결과는 그리 일관적이지 않았다.

독자성과 긍정적인 정신 건강과의 관계는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즉, 독자성은 높은 자존감과 정신적 안녕감 및 높은 삶의 만족도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Ghaed & Gallo, 2006; Helgeson & Fritz, 1999; Saragovi, Aubé, Koestner, & Zuroff, 2002). 또한 독자성이 높은 사람은 일상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보다 많이 경험하며(Saragovi et al., 2002), 우울, 불안 및 적대감을 포함한 여러 심리적 고통감을 적게 경험한다(Bruch, 2002; Helgeson & Fritz, 1999). 독자성은 신체적 건강과도 관련이 있어, 질병의 긍정적인 예후 및 적응을 예측하였다(Helgeson, 1993). 독자성이 높은 사람들은 폭식이나 단식과 같은 극단적 섭식 행동을 적게 하며, 전반적으로 건강한 식사 습관을 유지한다(Danoff-Burg, Moshier, & Grant, 2006; Moshier & Danoff-Burg, 2008). 이들은 치아 위생 역시 우수하였으며, 전반적으로 활발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anoff-Burg et al., 2006).

융화성과 정신적 건강 사이에도 정적인 관계가 있다. 융화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우울 증상 및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낮게 보고하며, 긍정적 정서 경험 및 삶의 만족도를 높게 보고한다(Aubé, 2008). 자기보고가 아닌 동

료들의 평가에서도 융화성이 높은 사람들은 높은 삶의 만족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행동 및 질병에 대한 적응과 융화성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한 종단연구에서 낮은 융화성은 연구 시작 당시의 높은 음주 수준과 상관이 있었으며, 8개월 후 음주량 증가 및 21개월 후 약물 사용의 증가를 예측하였다(Zeldow, Clark, & Daugherty, 1985).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높은 융화성과 많은 관련이 있다. 융화성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에게 사회적 지지를 많이 제공할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믿으며, 실제로 자신이 필요할 때 타인으로부터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Burda, Vaux, & Schill, 1984; Butler, Giordano, & Neren, 1985; Helgeson & Fritz, 1999, 2000). 융화성은 결혼을 포함한 일대일 관계의 만족 및 적응과도 관련이 있었는데(Helgeson & Fritz, 1999; Saragovi et al., 2002), 이는 융화성이 높은 사람들의 회피 애착 점수가 낮다는 연구 결과와도 부합한다(Ghaed & Gallo, 2006).

독자성과 사회적 관계 사이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많지는 않지만 존재하기는 한다. Saragovi, Koestner, Di Dio와 Aubé(1997)는 기존에 출판되었던 연구들을 메타분석하면서 독자성과 관계 만족도 사이에는, 비록 융화성과 관계 만족도 사이의 관계보다 그 크기가 작기는 하지만,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또, 독자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사회적 능력이 높다고 인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독자성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불안 애착 성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와 부합한다(Ghaed & Gallo, 2006).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결과들과는 반대로 독자성과 융화성이 부정적인 지표들과 연관된다는 연구 결과들 역시 다수 존재한다. 독자성이 높은 사람은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이 높은 A 유형 성격과 관련된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Batlis & Small, 1982; Nix & Lohr, 1981; Payne, 1987), 더 높은 공격성을 보였다(Horwitz & White, 1987). 또한 독자성이 높은 사람은 신체적 질병이 걸릴 위험이 높았으며(Wiggins & Trapnell, 1996), 부부 사이의 갈등 역시 많았다(Smith, Traupman, Uchino, & Berg, 2010). Helgeson과 Fritz의 연구(1999)에서 융화성은 자존감 및 심리적 안녕감 지표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른 연구들에서도 융화성은 자존감 및 우울증(Mosher & Danoff-Burg, 2005) 혹은 전반적인 사회적 만족을 비롯한 심리적 적응 지표들(Saragovi et al., 2002)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언급했듯, 독자성과 융화성에 대한 연구가 남성의 높은 사망률과 여성의 높은 질병률이라는 난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실제로 독자성과 융화성에 관한 연구는 다소 비일관적인 결과를 내놓았고, 오히려 독자성은 정신 및 신체 건강에, 융화성은 대인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질병률과 사망률에 있어서의 성차 문제는 독자성과 융화성 연구에 '경직성'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보다 명확한 설명이 가능해졌다.

경직성 개념이 포함된 연구: 일관적인 결과

Helgeson(1994)은 독자성과 융화성에 대한 개관논문을 통해 독자성과 융화성은 경직된 독

자성과 경직된 융화성과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후 이 모델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은 경직된 독자성과 경직된 융화성이 신체 및 정신 건강 문제,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과 연관성이 있음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즉, 독자성과 융화성은 건강 및 사회적 관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남성의 높은 사망률과 여성의 높은 질병률과 관계가 있는 변인은 기실 경직된 독자성과 경직된 융화성이라는 것이다.

경직된 독자성은 대부분 부정적인 건강 변인과 높은 상관을 보인다. 예컨대, 경직된 독자성이 높은 사람들은 불안 및 우울을 포함한 심리적 고통감을 높게 경험하며(Bruch, 2002; Helgeson & Fritz, 1999; Hoyt & Stanton, 2011), 경직된 독자성은 낮은 자존감 및 낮은 심리적 안녕감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elgeson & Fritz, 1999). 신체적 건강 행동에 대한 연구에서는, 경직된 독자성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폭식, 무모한 운전, 약물 사용과 관련된 행동을 할 경향성이 높았으며, 약물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들을 더 많이 경험했다(Danoff-Burg et al., 2006).

경직된 융화성 역시 여러 부정적인 건강 관련 변인들과 관계가 있다. 경직된 융화성이 높은 사람은 불안 및 우울과 같은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며(Helgeson, 1994; Helgeson & Fritz, 1999; Jin, Van Yperen, Sanderman, & Hagedoorn, 2010), 자존감과 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낮다(Aubé, 2008). Aubé(2008)는 경직된 융화성이 10년 후 우울 증상을 예측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중단연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경직된 융화성은 10년 전의 적응 수준 및 신경증 수준을 통제 한 후에도 우울증을 유의하게 예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직된 독자성 및 경직된 융화성은 건강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태도 및 행동과도 관련이 있다. 경직된 독자성은 심장 문제를 발견한 후 도움을 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Helgeson, 1990), 경직된 독자성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스트레스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주류 및 약물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다(Snell, Belk, & Hawkins, 1987). 또한, 경직된 독자성이 높거나 경직된 융화성이 높은 남성 환자들 모두 퇴원 후 힘이 드는 활동을 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양상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Helgeson, 1993). 구체적으로, 경직된 독자성이 높은 남성들은 남성적이라고 여겨지는 집안일(예, 쓰레기 버리기)만을 줄이지 않았는데, 이는 이러한 남성들이 나쁜 건강 상태에도 불구하고 남성성을 유지하고자 했음을 시사한다. 반면, 경직된 융화성이 높은 남성들은 전반적인 집안일을 줄이지 않았는데, 이는 이들이 자신의 건강보다 아내의 편안함(으로 부터 기인하는 아내로부터의 인정)을 우선시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경직된 독자성과 경직된 융화성이 갖는 부정성

Helgeson과 Fritz(2000)에 따르면 경직된 독자성의 주된 특징은 타인과 세상에 대한 적대적이며 비호의적인 태도이다. 즉, 경직된 독자성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인 관계에서 지배적이고, 차가운 행동이나 타인에 대한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며, 이러한 성향은 부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이어진다(Helgeson & Fritz, 1999). 경직된 독자성은 특히 높은 지배성, 보복성, 냉정함과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Helgeson

& Fritz, 1999), 자신의 관심과 이익을 위해 타인을 조종하기, 요청을 거절하기, 혹은 명령하기와 같은 행동들과 관련이 있었다(Buss, 1990). 최근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원형(interpersonal circumplex)을 통해 대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나 행동을 이론화하고 평가하고자 시도하였는데, 원형은 친화성(friendliness) 대 적대감(hostility), 지배성(dominance) 대 복종성(submissiveness)의 두 차원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경직된 독자성은 타인에 대한 적대적인 지배성(hostile dominance)과 연관되었다(Ghaed & Gallo, 2006).

반면, 경직된 융화성의 특성은 ‘자기 방치(self-neglect),’ ‘타인에 대한 과도한 몰입(overinvolvement)’ 그리고 ‘외재화된 자기 평가(externalized self-evaluation)’의 세 가지 요소로 설명되어 왔다(Aubé, 2008; Fritz & Helgeson, 1998; Jin et al., 2010). 즉 경직된 융화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돌보는 것(건강, 학업 등)을 희생하면서까지 타인의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개입하고자 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실제 신입생들의 성적 하락 혹은 신체 질병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 등 좋지 않은 예후로 이어졌다(Helgeson & Fritz, 1999, 2000). 또한 경직된 융화성이 높은 사람의 도움 행동은 상호적이기보다는 일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경직된 융화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타인에게 높은 사회적 지지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는 높게 지각하지 않았으며(Helgeson & Fritz, 1998, 2000), 오히려 도움이 필요할 때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며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Fritz & Helgeson, 1998). 경직된 융화성이 높은 사람들의 이러한

특징은 자신의 존재감과 가치의 판단을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는 특성과 연관된다(Helgeson & Fritz, 1998). 그들은 타인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거나 필요한 존재가 됨으로써 스스로의 자존감을 유지시키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타인과의 갈등이나 타인으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피하기 위해 자기표현과 주장을 억제하고(Fritz & Helgeson, 1998), 착취적인 관계라 할지라도 그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한다(Buss, 1990).

이렇듯 경직된 독자성과 경직된 융화성은 건강 및 사회적 관계의 부정적인 변인들과 관련이 있다. Helgeson(1994)에 따르면, 경직된 독자성과 경직된 융화성은 모두 통제에 대한 과도한 욕구를 통해 신체 및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구체적으로, 경직된 독자성이 높은 사람은 성취 영역에서의 과장된 통제 욕구로 인해 A 유형 성격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는 반면, 경직된 융화성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과도한 통제 욕구로 인해 타인과 자신을 결속시키려는 행동을 하게 된다. 경직된 독자성이 강한 사람은 성취에 대한 욕구에 과도하게 몰입함으로써 타인과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맺는 것에 실패하고(Helgeson & Fritz, 1999, 2000), 심리적인 문제를 술, 약물이나 공격적이고 과격한 행동 등으로 표면화하여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Danoff-Burg et al., 2006). 한편, 경직된 융화성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기 위하여 타인의 욕구에 종속되어 스스로의 필요를 방치하게 되고(Fritz & Helgeson, 1998), 결국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 및 건강관리의 어려움 등을 경험하게 된다.

내러티브 속에서의 독자성과 융화성

독자성과 융화성은 개인의 성격, 가치, 동기, 사회적 행동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둘을 삶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이해하는 틀로서 접근하는 연구도 있다. 과거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는 미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어떤 사건이 왜 일어났고, 그 사건에 어떻게 대응했고, 그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 등에 대한 서사는 삶의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Baumeister, Stillwell, & Wotman, 1990; Bruner, 1990; Fitzgerald, 1988; Gregg, 1991; Hermans, Kempen, & Van Loon 1992). 이렇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분석하는 연구를 내러티브 연구라고 하는데, 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서술하도록 하고 그 이야기를 살펴봄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을 일컫는다. 이러한 내러티브는 단순히 성격적 특질 등으로는 표현될 수 없는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을 드러낸다(Adler, Lodi-Smith, Philippe, & Houle, 2016; McAdams, 1995).

내러티브의 코딩 시스템

앞서 언급했듯, 독자성과 융화성은 심리학에서 권력동기나 친밀동기 등 다른 비슷한 개념으로 명명되고 연구되어 왔다. 내러티브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독자성과 융화성의 코딩 시스템을 만들어 분석한 것은 McAdams, Hoffman, Mansfield와 Day(1996)의 연구가 처음이다. 연구자들은 자전적 이야기 안에 담겨 있는 독자성과 융화성에 대한 8가지 주제를 분석했다. 독자성에 대한 4가지 주제는 1) 자기강화 2) 지위 3) 성취/책임 4) 권한이었고,

융화성에 대한 4가지 주제는 5) 사랑/우정 6) 대화 7) 배려/도움 8) 공동체/우리성 이었다. 각각의 주제가 글 안에 있으면 1점, 없으면 0점을 주는 방식으로 코딩함에 따라 독자성과 융화성 점수는 각각 최소 0점, 최대 4점이 될 수 있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8가지 주제에 각각 점수를 부여하는 대신, 글 안에 독자성과 융화성이 존재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1점 혹은 0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Bauer & McAdams, 2004, 2010)

Frimer, Walker와 Dunlop(2009)은 내러티브를 분석할 때 하나의 '사건'을 단위로 코딩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단어'를 단위로 코딩하였다. 독자성과 융화성에 해당하는 8가지 주제의 유무를 살펴보는 대신, 독자성 및 융화성에 해당하는 단어의 개수를 세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내러티브에서 독자성과 융화성이 나타나는 정도의 차이를 세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몇몇 연구자들은 독자성과 융화성 사이의 관계가 나타나는 방식을 코딩하기도 하였다. Frimer와 Walker(2010)에 따르면, 독자성과 융화성은 서로에게 다섯 가지 방법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 다섯 가지 관계는 1) 도구(instrumentality: x가 y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 2) 보상(compensation: x와 y가 동등한 요소로 상호 호혜적이거나 서로를 대체할 수 있는 것), 3) 묘사(illustration: x가 y의 정의, 설명, 혹은 예시가 되는 것), 4) 합성(superimposition: x와 y가 합해져서 하나의 개념을 형성하는 것), 5) 논리적 합동(logical coordination: x가 y와 순서대로 합해져서 하나의 논리적 생각을 형성하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이를 통해 내러티브에 나타난 독자성 및 융화성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이 둘

사이의 관계성 및 통합의 정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삶의 어려움에 대한 심리적 적응

사람들이 살면서 경험하는 어려움들을 인지하고 해석하는 방식은 심리적 적응과 많은 관련이 있다(King & Noelle, 2005). 이에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삶의 어려움, 예를 들어 자식이 다운 증후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황(King, Scollon, Ramsey, & Williams, 2000), 이직이나 개종(Bauer & McAdams, 2004), 동성애자의 커밍아웃(King & Noelle, 2005), 이혼(King & Raspin, 2004), 정신과 치료(Adler, Skalina, & McAdams, 2008) 등에 대한 내러티브가 심리적 적응과 관련이 있는지 연구하였다.

한 예로, Bauer와 McAdams(2004)는 어려운 삶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하고, 그 속에서 독자성 및 융화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연구하였다. 이들은 신문 광고를 통해 직업이나 종교를 바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참여자들에게 본인의 변화 경험에 대해 생각해보고, 구체적인 사건을 떠올린 후 그 사건이 과거와 현재의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서술하도록 하였다. 참여자들은 또 자기보고형식으로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도 척도에 답하고, 이직이나 개종과 같은 삶의 전환점이 삶의 목표나 직장생활, 대인관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에 답하였다. 연구 결과, 내러티브 속에서 독자성에 관한 성장 이야기가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변화 경험이 본인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여기는 경향이 더 높았던 반면, 융화성에 관한 성장 이야기가 있던 사람들은 안녕감과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러티브 속에서 나타난 독자성과 정신 건강과의 관계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독자성은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에 대처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과 많은 관련이 있는데, 이는 독자성이 개인의 자립성, 성취, 통제감 및 목적의식 형성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독자성은 심리치료 장면에서 내담자들의 정신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dler 등(2008)의 연구에서는 정신과 치료 경험에 있는 사람들에게 치료의 과정을 회상한 후 글을 쓰도록 하였다. 참가자들이 서술한 치료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분석한 결과, 내러티브에서 독자성 점수가 높았던 사람일수록 더 나은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Adler(2012)의 심리 치료 과정에 대한 종단 연구는 내러티브에 나타난 독자성의 변화가 정신 건강의 변화에 선행한다는 것을 밝혔다. 참여자들은 12번의 정신치료를 받는 47명의 환자들이었는데 이들은 각 회기마다 정신치료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러티브를 서술하였고 동시에 정신 건강에 대한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분석한 결과, 치료 회기를 거듭할수록 환자들의 독자성 점수가 높아졌고, 직전 회기 내러티브의 독자성 점수가 다음 회기의 향상된 정신 건강을 예측하였다. 다시 말해 내러티브에 나타난 독자성의 변화가 높은 정신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독자성과 융화성의 통합

앞서 언급했듯, 독자성과 융화성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즉, 독자성이 높다고 해서 융화성이 반드시 높거나 낮거나 한 것은 아니

다. 바꿔 말하면, 높은 독자성과 높은 융화성은 한 사람 안에서 공존 가능하고(Wiggins, 1991), 어느 하나의 발달이 다른 하나의 감소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독자성과 융화성은 통합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 독자성과 융화성 간의 통합은 단순히 독자성과 융화성이 모두 높은 것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내러티브 내에서 독자성과 융화성의 통합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나 행동의 발현에 있어 독자성과 융화성 모두가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나는 다른 사람이 목표를 이루도록 돕고 싶다'는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독자성을, 타인에 대한 관심의 측면에서는 융화성을 나타낸다. 즉, 서로 다른 두 가지 사건에 대해 독자성과 융화성이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는 달리 하나의 사건에 두 개념이 협동적 영향력을 미칠 때 이를 두 개념 간의 통합이라 본다. 많은 연구자들이 독자성과 융화성의 동시적 발현이 성인 발달에 중요한 요소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고(Blatt & Luyten, 2009; Fournier, Moskowitz, & Zuroff, 2009; Guisinger & Blatt, 1994; McAdams, de St. Aubin, & Logan, 1993), 이와 같은 독자성과 융화성의 통합은 특히 생성감(generativity)을 통해 잘 드러난다.

생성감이란 Erikson(1963)이 성인 발달의 한 지표로서 제시한 개념으로, 다음 세대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젊은이들을 인도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동기나 생각, 행동 등을 가리킨다. McAdams, Ruetzel과 Foley(1986)에 따르면, 생성감은 높은 독자성과 높은 융화성이 모두 존재할 때 발현된다. 후대를 위해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서는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자신만의 업적을 남기고자 하는 독자성이 필요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 위해서는 융

화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McAdams 등(1986)은 독자성 및 융화성과 생성감의 관계를 내러티브 연구를 통해 알아보았다. 참여자들은 본인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적고, 이후 Thematic Apperception Test에 사용되는 자극물 그림을 보고 그림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서술하였다. 연구자들은 인생 이야기 속의 생성감, 그림 이야기 속의 권력동기(독자성에 상응)와 친밀동기(융화성에 상응)를 코딩하였다. 그 결과, 권력동기 점수와 친밀동기 점수의 합이 개별적인 권력동기나 친밀동기 점수보다 생성감을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력동기와 친밀동기의 합산점수, 즉 둘 사이의 통합 정도가 높을수록 생성감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독자성과 융화성의 통합은 도덕적 성격의 발달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Frimer, Walker, Dunlop, Lee와 Riches(2011)는 뛰어난 봉사자에게 수상하는 Caring Canadian Award 수상자 25명과 일반인 25명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들은 참여자들에게 인생의 중요한 경험 및 개인적으로 일상에서 노력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서술하게 한 후, 두 이야기 안에서 독자성과 융화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수상자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독자성과 융화성이 각각 높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 안에서 독자성과 융화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통합 역시 더 많이 일어났다.

한편, Frimer, Walker, Lee, Riches와 Dunlop(2012)은 독자성과 융화성이 어떤 방식으로 통합되는지에 따라 도덕적인 성격 발달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덕적인 사람일수록 융화성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독자성을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종 간의 화합'이라는 융화성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소수 인종의 권리를 위해 싸운다'는 독자성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이는 독자성과 융화성의 단순한 동시성을 넘어 둘 간의 통합과 통합의 방법 또한 사람들의 심리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독자성과 융화성에 대한 사회인지적 접근

Abele과 Wojciszke(2007, 2014)는 최근 독자성과 융화성을 사회인지적 측면으로 접근하여, '자기 인식'과 '타인 인식'의 차이를 설명하는 틀로서 두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Abele과 Wojciszke(2014)가 제시한 이중관점 모델(dual perspective model of agency and communion)은 사회적 정보처리의 모든 과정(정보 접근성, 정보 수집, 주의 할당, 해석, 평가 및 정서 경험)에서 나타나는 행위자와 관찰자의 관점의 차이를 독자성과 융화성 개념과 연결 지어 설명한다. 요컨대, 어떠한 관점에서 일련의 행동을 바라보는지는 독자성과 융화성 중 어떤 영역에 중점을 두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중관점 모델은 개인은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필연적으로 행위자이자 관찰자로 살아가고, 행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목표를 추구하게 된다고 가정한다. 행위자로서의 목표는 효율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인 반면, 관찰자에게 중요한 것은 행위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그로 인한 결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자신감 있는'이나 '능력 있는' 등과 같이 독자성 영역에 속하는 특성들은 행위자가 원하는 바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유용하다. 반면,

‘믿을 만한’이나 ‘친절한’ 등 융화성 영역에 속하는 특성들은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행위자의 주변에 있는 관찰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관찰자의 입장에서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Abele과 Wojciszke(2007)는 참여자들에게 300개의 성격 특성에 대해 각 특성이 (1) 독자성과 융화성을 나타내는 정도, (2) 그 특성을 보유한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정도(자기 유익성; self-profitability)와 (3) 각 특성을 보이는 사람의 주변인들에게 이득이 되는 정도(타인 유익성; other-profitability)를 평가하게 하였다. 그 결과, 독자성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특성일수록 자기 유익적으로 평가되고, 융화성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특성일수록 타인 유익적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이중관점 모델은 크게 세 가지 가설을 제시한다. 첫째, 사람들은 사회를 이루어 남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융화성이 독자성보다 정보처리과정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칠지 아닐지를 판단하는 것이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판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회적 정보처리 과정에 관한 많은 연구들에서 이와 같은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Abele & Bruckmüller, 2011; DeLemus, Spears, Bukowski, Moya, & Lupiáñez, 2013; Ybarra, Chan, & Park, 2001). 예를 들어, Ybarra와 동료들(2001)의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어휘판단 과제에서 융화성과 관련된 영어 단어를 독자성 관련 단어보다 더 빨리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융화성 관련 내용이 정보처리의 초기 단계에서 더 먼저 처리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아가 Abele과 Bruckmüller

(2011)는 재인뿐 아니라 범주화 및 추론 단계에서도 융화성 영역이 더 우선시됨을 확인하였다. 주어진 단어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분류하는 과제에서 참여자들은 독자성을 나타내는 단어보다 융화성을 나타내는 단어를 봤을 때 더 빠르게 단어들을 범주화하였고, 독자성과 융화성에 관련된 정보가 동일한 정도로 들어 있는 문장을 봤을 경우에도 융화성과 관련된 추론을 하는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관점 모델의 두 번째 가설은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고자 하는 관찰자의 관점에서는 융화성과 관련된 정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Wojciszke, Bazinska와 Jaworski (1998)의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그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을 평가하였는데, 이때 독자성과 융화성의 높고 낮음이 실험적으로 조작되었다. 예를 들어, “A는 자리에 없는 친구가 근거 없는 비난을 받아 친구를 변호했지만, 앞뒤가 맞지 않아 누구도 설득하지 못했다”는 묘사는 높은 융화성과 낮은 독자성을 나타낸다. 연구 결과, A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은 독자성이 아니라 융화성의 높고 낮음에 의해 결정되었다. 즉, 관찰자로서의 개인은 독자성보다 융화성 정보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경향을 보였다.

이중관점 모델이 제시하는 마지막 가설은 자신의 목표 달성에 관심을 두는 행위자의 관점에서는 독자성과 관련된 정보에 더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Wojciszke(1994)는 참여자들에게 “뛰어난 운전 실력 덕분에, 갑자기 길에 떨어진 개를 구할 수 있었다” 등과 같이 독자성과 융화성을 모두 보여주는 사건에 대해 행위자 혹은 관찰자의 관점에서 평가하게 하였다. 그 결과, 자신이 행위자라고 상

상한 참여자들은 관찰자라고 상상한 참여자들에 비해 이 행동을 융화성이 아닌 독자성의 표출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독자성과 융화성에 대한 기존 연구는, 성격적 특성이든 내러티브 속의 주제이든, 독자성과 융화성을 개인을 설명하는 요소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중관점 모델은 인간 존재 방식의 기본적인 두 차원이라 할 수 있는 독자성과 융화성을 사회적 판단이라는 측면에서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전혀 다른 지향점을 지니고 있다. 아직 연구가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이중관점 모델은 다양한 심리학 분야의 연구들을 이해하고 통합하는 틀로 기능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독자성과 융화성 관련 기타 연구들

독자성과 융화성은 인간을 이해하는 근원적인 틀로, 앞서 개관된 주제들 이외에도 다양한 주제들에 관한 연구에서 활용되어 왔다. 공정성과 관련된 연구에서 Watts 등(1982)은 참여자들을 독자성과 융화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고, 이들이 자신보다 늦게 일을 시작한 동료에게 보상을 할당하는 데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관찰했다. 그 결과, 높은 독자성 집단은 낮은 독자성 집단보다 자신에게 더 많은 보상을 분배하고, 자신과 동료 모두 더 많은 돈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대로 융화성이 높은 집단은 자신과 동료에게 보상을 분배함에 있어, 자신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적은 액수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Olejnik, Tompkins와 Heinbuck(1982)의 연구에서도 높은 남성성, 즉 독자성을 보인 참여자들

은 투입에 비례하여 성과를 나누는 형평 분배를 선호하는 반면 여성성, 즉 융화성이 높은 참여자들은 투입 크기와는 관계없이 성과를 동일하게 나누는 균등 분배를 하는 경향이 강했다.

독자성과 융화성에 따라 소통 방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Fritz, Nagurney와 Helgeson(2003)의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동성 혹은 이성 친구를 동반하고 실험에 참여해 4분간 친구에게 대인관계 고민을 털어놓은 후, 2분간 그에 대한 친구의 의견을 들었다. 이어서 참여자와 친구에게는 다시 한번 2분씩 고민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졌다. 두 사람의 대화와 자기보고식으로 측정된 친구의 독자성과 융화성을 분석한 결과, 독자성이 높은 친구일수록 조언을 하는 빈도가 높았으며, 융화성이 높은 친구일수록 정서적 지지를 많이 제공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 Leaper(1987)의 연구에서 독자성이 높은 사람은 간접적인 진술문(I think)과 수동적 자기 언급(me)의 사용 빈도가 낮았으며, 융화성이 높은 사람은 친밀감 회피의 지표로 사용되는 불특정인에 대한 언급(impersonal reference)을 적게 하였다. Kirtley와 Weaver(1999)의 연구에서도 독자성이 높은 사람들은 지배적이고 공격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선호하는 반면, 융화성이 높은 사람들은 공유적이고 표현적인 방식을 선호하였다.

Martin, Puhlik-Doris, Larsen, Gray와 Weir(2003)는 독자성과 융화성이 유머 스타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사했다. 보통 유머 스타일은 스트레스나 역경 앞에서도 유머러스한 조망을 유지하는 차원의 자기 고양적 유머, 대인관계를 원만히 하고 긴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관계적 유머,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헐뜯고

빈정대는 공격적 유머, 그리고 자신을 과도하게 웃음거리로 만드는 자기 파괴적 유머로 구분된다. 연구 결과, 독자성은 자기 고양적 유머와, 융화성은 관계적 유머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또한 경직된 독자성이 높을수록 공격적 유머 점수가 높았으며, 경직된 융화성이 높을 경우 자기 고양 및 관계적 유머 점수는 낮게 나타났다.

한편 성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독자성과 융화성은 연인 관계 연구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Gebauer, Leary와 Neberich (2012)는 연인 선택에 관한 연구에서 독자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매력도와 높은 지위를 중요시하고, 융화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온화함을 강조하는 경향성을 관찰했다. 다른 연구(Thorton & Nagurney, 2011)에서는 참여자들의 외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는데, 융화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잠재적으로 외도로 여겨질 수 있는 행동 목록(예, 연인이 아닌 상대와의 친밀한 키스, 연인이 아닌 상대와의 성관계)에서 더 많은 항목이 외도에 해당한다고 응답했다. Mosher와 Danoff-Burg(2005)의 연구에 따르면, 융화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부정적 성관계에 관여할 의향은 낮게 나타났다. 또 경직된 독자성이 높을수록 성적 관계에서 강압적으로 승낙을 얻는 것에 동의했으며 경직된 융화성이 높은 여성의 경우, 성폭행 혹은 성폭행 시도에 의한 피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에서는(Buss, 1990) 경직된 융화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 방어 없이 언어폭력을 받아들이고, 반복적으로 사과하는 등의 복종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자성과 융화성은 부모로서의 역할과 양육 행동을 다루는 연구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Abele과 Spurk(2011)는 27세에 측정된 융화성이

높을수록 10년 후 부모가 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높은 독자성 또한 부모됨 여부를 예측한다고 보고했다. 이는 융화성이 자녀를 가질 의향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Abele(2003)의 연구와도 관련이 있다. Von der Lippe과 Torgersen(1986)의 연구에서는 융화성이 높은 여성은 모성 역할에 문제없이 적응하는 반면, 독자성이 높은 여성은 임신 기간 동안 모성역할에 대해 양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Cannon, Schoppe-Sullivan, Mangelsdorf, Brown과 Sokolowski(2008)는 ‘자유 놀이’와 ‘옷 갈아입히기’라는 두 상황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이와 교류하는 모습을 녹화한 후 분석했다. 그 결과, 아버지의 아빠역할 행동(fathering behavior)은 스스로의 융화성과는 정적상관을 보인 반면, 어머니의 융화성과는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즉, 어머니의 융화성이 높을수록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이와 시간을 적게 보내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특히 옷 갈아입히기 상황에서 다른 아버지들 보다 낮은 유능감을 보였다. 연구자들은 이에 대해 융화성이 높은 여성의 경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때문에 아이와의 관계 또한 중시하며, 이에 따라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큰 의미를 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독점하려는 행동을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아빠역할 행동에 영향을 주거나, 애초에 가족 내에서 방관자의 자세를 취하는 남성을 배우자로 삼았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직장 내에서의 독자성 및 융화성의 역할에 대한 연구도 존재한다. Chiaburu와 Carpenter(2013)은 소속감을 중시하는 융화성 추구 수준과 업무행동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융화성을 추구하는 직원일수록 적극

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거나 지시 받은 것 외의 일을 찾아서 하는 자기주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융화성 추구 수준이 능동적으로 업무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선제 행동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는 반면, 조직 내 도움 행동을 바라거나 제공하는 정도를 예측한다는 Chiaburu, Marinova와 Lim(2007)의 연구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 한편,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Fannin & Dabbs, 2003)에서는 독자성과 융화성이 소방 기술 및 응급 치료와 관련이 있는지를 보았다. 그 결과, 전문가들로부터 수행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은 소방관일수록 독자성이 높고 융화성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융화성이 높은 소방관은 소방 업무보다 응급구조 업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병원의 마취 전문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Weiss, Kolbe, Grote, Dambach, Marty, Spahn, & Grande, 2014)에서는 전문의와 간호사를 한 명씩 짝지어서 응급 상황 시뮬레이션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팀 구성원의 독자성과 융화성은 응급상황에서 의견 제안, 문제 해결, 의문 제기 등을 포함하는 의사 표현 빈도와 각각 정적,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한국에서의 연구 현황과 향후 과제

이처럼 독자성과 융화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직접적으로 이 둘을 다룬 연구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 연구에서 독자성과 융화성은 성역할 특성으로서 다루어질 뿐 아직 독립적인 연구 주제로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남성성과 여성

성을 측정하기 위해 BSRI와 EPAQ 등을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나, 문항의 문화적 적합성이나 번역의 어려움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김영희(1988)나 정진경(1990)이 한국 상황에 맞게 개발한 성역할 검사(Korean Sex Role Inventory; KSRI)가 이후 성역할 특성에 관한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정진경(1990)은 김영희(1988)의 KSRI에서 높은 남성성 점수가 바람직한 남성적 특징을 의미하는 것과 달리 부정적 특성을 많이 포함하는 여성성 척도에서의 높은 점수는 바람직한 특징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양성성의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기존 척도들의 문제점을 보완한 정진경의 KSRI는 남성성, 여성성, 긍정성 문항을 각각 20개씩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남성성은 남녀 응답자 모두 남성에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문항, 여성성은 남녀 모두 여성에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문항을 가리키며, 긍정성은 중성적인 문항 중 바람직한 특성과 바람직하지 못한 특성을 각각 10개씩 포함하고 있다.

성역할 검사를 사용한 다수의 국내 연구는 성역할 정체감과 진로 관련 변인을 주제로 하고 있다. 조아미(2002)는 중, 고등학생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이 진로의사결정 효능감, 진로의사결정,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진로에 있어서 성역할 정체감 유형이 성별보다도 많은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보고했다. 진로의사결정 효능감과 진로성숙의 경우, 양성성 정체감이나 남성성 정체감을 가진 청소년이 미분화 정체감이나 여성성 정체감을 가진 청소년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외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진로흥미(지용근, 2004; 임희경, 이기학, 2006), 진로장벽(김은희, 김봉환, 2010; 이승주, 2012) 등에 관

심을 가지고 연구하였다.

비록 많은 국내 연구들이 남성성, 여성성 변인을 이용하는 데 머무르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독자성 및 융화성에 관한 논의가 전무했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양기승(2000)은 김득란(1993)이 제작한 성역할 정체감 척도를 요인 분석하여 남성성 요인에서는 독자성과 외적인 남성다움을, 여성성 요인에서는 융화성과 외적인 여성다움을 하위요인으로 추출하였다. 김성희(2009) 또한 성역할특성과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를 조사하며 독자성, 융화성 및 경직된 독자성과 경직된 융화성을 집중적으로 조망한 바 있다.

국내에서 독자성과 융화성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독자성과 융화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경직된 융화성은 Helgeson과 Fritz(1998)가 개발한 문장형식으로 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지만, 독자성과 융화성, 경직된 독자성은 EPAQ에서 사용되는 형용사들을 통해 측정한다. Helgeson과 Fritz(1998)가 경직된 융화성은 단순히 형용사의 형태로 측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 만큼, 네 개의 개념을 동일한 문장형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독자성과 융화성이 어떤 영역에서 생물학적인 성차를 매개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 방향이 될 것이다. 한국은 남녀차별이 강하게 남아 있는 사회이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일의 영역에서 소외되고 있고, 남성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어색함을 느낀다. 한국사회가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성차가 독자성과 융화성의 차이로 환원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내는 것은 인간심리에 대

한 지식확장뿐 아니라,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성에 관한 편견과 고정관념 양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독자성과 융화성이라는 개념은 인간 심리, 나아가 인간의 존재 방식을 설명할 수 있는 근원적인 두 차원으로 본 논문에서 개관했던 것처럼 성격심리, 사회심리, 건강심리, 동기, 대인관계에서의 행동 등 심리학 내의 서로 다른 연구 주제들을 포괄할 수 있는 거대 개념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독자성과 융화성이라는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실정이고 여전히 전통적인, 나아가 성차별적인 요소를 가질 수 있는,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개념의 다른 이름 정도로만 여겨지고 있다. 독자성과 융화성, 이 두 개념에 대한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득란 (1993). 양성적 남녀의 성역할 반응양식과 관련변인 분석.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성희 (2009). 성역할 특성으로서의 주도성, 친화성, 경직된 주도성, 경직된 친화성과 심리적 적응.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은희, 김봉환 (2010). 진로역할지향성에 따른 진로장벽 인식과 타협과정 연구. 상담학연구, 11(4), 1451-1468.
- 김영희 (1988). 한국형 성역할 검사(Korean Sex Role Inventory) 개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27, 153-182.
- 양기승 (2000). 성역할정체감 및 대인관계 태도 유형과 수도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 가톨릭

-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승주 (2012). 대학생의 성인애착유형과 성역할 정체감유형이 지각된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임희경, 이기학 (2006).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 및 진로효능감이 진로흥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3(1), 53-67.
- 정진경 (1990). 한국 성역할 검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5(1), 82-92.
- 조아미 (2002). 청소년의 성별과 성역할 정체감이 진로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91-108.
- 지용근 (2004). 초등학교의 남성성, 여성성과 진로태도성숙, 진로흥미와의 관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757-772.
- Abele, A. E. (2003). The dynamics of masculine-agentic and feminine-communal traits: Findings from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4), 768-776.
- Abele, A. E., & Bruckmüller, S. (2011). The bigger one of the "Big Two"? Preferential processing of communal inform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7*(5), 935-948.
- Abele, A. E., & Spurk, D. (2011). The dual impact of gender and the influence of timing of parenthood on men's and women's career development: Longitudinal finding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5*(3), 225-232.
- Abele, A. E., & Wojciszke, B. (2007). Agency and communion from the perspective of self versus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5), 751-763.
- Abele, A. E., & Wojciszke, B. (2013). The big two in social judgment and behavior. *Social Psychology, 44*(2), 61-62.
- Abele, A. E., & Wojciszke, B. (2014). Communal and agentic content in social cognition: A dual perspective model. In M. P. Zanna, & J. M. Olson (Ed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pp. 195-255). Burlington: Academic Press.
- Adler, J. M. (2012). Living into the story: Agency and coherence in a longitudinal study of narrative identity development and mental health over the course of psychotherap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2*(2), 367-389.
- Adler, J. M., Lodi-Smith, J., Philippe, F. L., & Houle, I. (2016). The incremental validity of narrative identity in predicting well-being: A review of the field and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20*(2), 142-175.
- Adler, J. M., Skalina, L. M., & McAdams, D. P. (2008). The narrative reconstruction of psychotherapy and psychological health. *Psychotherapy Research, 18*(6), 719-734.
- Aubé, J. (2008). Balancing concern for other with concern for self: Links between unmitigated communion, commun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76*(1), 101-133.
- Bakan, D. (1966). *The duality of human existence*. Boston, MA: Beacon Press.
- Bardi, A., & Schwartz, S. H. (2003). Values and behavior: Strength and structure of rela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10),

- 1207-1220.
- Batlis, N., & Small, A. (1982). Sex roles and type A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8*(2), 315-316.
- Bauer, J. J., & McAdams, D. P. (2004). Personal growth in adults' stories of life transitions. *Journal of Personality, 72*(3), 573-602.
- Bauer, J. J., & McAdams, D. P. (2010). Eudaimonic growth: Narrative growth goals predict increases in ego develop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three years later. *Developmental Psychology, 46*, 761-772.
- Baumeister, R. F., Stillwell, A. M., & Wotman, S. R. (1990). Victim and perpetrator accounts of interpersonal conflict: Autobiographical narratives about ang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5), 994-1005.
-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2), 155-162.
- Blatt, S. J., & Luyten, P. (2009). A structural - developmental psychodynamic approach to psychopathology: Two polarities of experience across the life spa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1*(3), 793-814.
- Block, J. (1961). *The Q-sort method in personality assessment and psychiatric research.*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 Block, J. (2008). *The Q-sort in character appraisal: Encoding subjective impressions of persons quantitativel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ruch, M. A. (2002). The relevance of mitigated and unmitigated agency and communion for depression vulnerabilities and dysphoria.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4), 449-459.
- Bruner, J. S. (1990). *Acts of Meaning.* Harvard University Press.
- Buchanan, K., & Bardi, A. (2015). The roles of values, behavior, and value-behavior fit in the relation of agency and communion to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83*(3), 320-333.
- Burda, P. C., Vaux, A., & Schill, T. (1984). Social support resources variation across sex and sex rol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0*(1), 119-126.
- Butler, T., Giordano, S., & Neren, S. (1985). Gender and sex-role attributes as predictors of utilization of natural support systems during personal stress events. *Sex Roles, 13*(9), 515-524.
- Buss, D. M. (1990). Unmitigated agency and unmitigated communion: An analysis of the negative components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Sex Roles, 22*, 555-568.
- Cannon, E. A., Schoppe-Sullivan, S. J., Mangelsdorf, S. C., Brown, G. L., & Sokolowski, M. S. (2008). Parent characteristics as antecedents of maternal gatekeeping and fathering behavior. *Family Process, 47*(4), 501-519.
- Chiaburu, D. S., & Carpenter, N. C. (2013). Employees' motivation for personal initiative: The joint influence of status and communion striving. *Journal of Personnel Psychology, 12*(2), 97-103.
- Chiaburu, D. S., Marinova, S. V., & Lim, A. S. (2007). Helping and proactive extra-role behaviors: The influence of motives, goal

- orientation, and social contex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8), 2282 - 2293.
- Cota, A. A., & Fekken, G. C. (1988). Dimensionality of the personal attributes questionnaire: An empirical replication.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1), 135-140.
- Crocker, J. (2008). From egosystem to ecosystem: Implications for learning, relationships, and well-being. In H. Wayment & J. Bauer (Eds.), *Transcending self-interest: Psychological explorations of the quiet ego* (pp. 63-7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Danoff-Burg, S., Mosher, C. E., & Grant, C. A. (2006). Relations of agentic and communal personality traits to health behavior and substance use among college stud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2), 353-363.
- DeLemus, S., Spears, R., Bukowski, M., Moya, M., & Lupiáñez, J. (2013). Reversing implicit gender stereotype activation as a function of exposure to traditional gender roles. *Social Psychology*, 44(2), 109-116.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NY: W. W. Norton & Co.
- Fannin, N., & Dabbs, J. M. (2003). Testosterone and the work of firefighters: Fighting fires and delivering medical car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7(2), 107-115.
- Fiske, S. T., Cuddy, A. J. C., & Glick, P. (2007). Universal dimensions of social cognition: Warmth, then competence. *Trends in Cognitive Science*, 11(2), 77-83.
- Fitzgerald, J. M. (1988). Vivid memories and the reminiscence phenomenon: The role of a self narrative. *Human Development*, 31(5), 261-273.
- Fournier, M. A., Moskowitz, D. S., & Zuroff, D. C. (2009). The interpersonal signatur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3(2), 155-162.
- Frimer, J. A., & Walker, L. J. (2010). *VEiN relationship coding manual*. Unpublished manuscript,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Vancouver, Canada.
- Frimer, J. A., Walker, L. J., & Dunlop, W. L. (2009). *Values embedded in narrative (VEiN) coding manual*.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Vancouver.
- Frimer, J. A., Walker, L. J., Dunlop, W. L., Lee, B. H., & Riches, A. (2011). The integration of agency and communion in moral personality: Evidence of enlightened self-inter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1(1), 149-163.
- Frimer, J. A., Walker, L. J., Lee, B. H., Riches, A., & Dunlop, W. L. (2012). Hierarchical integration of agency and communion: A study of influential moral figures. *Journal of Personality*, 80(4), 1117-1145.
- Fritz, H. L., & Helgeson, V. S. (1998). Distinctions of unmitigated communion from communion: Self-neglect and overinvolvement with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1), 121-140.
- Fritz, H. L., Nagurney, A. J., & Helgeson, V. S. (2003). Social interactions and cardiovascular reactivity during problem disclosure among friend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 29(6), 713-725.
- Gebauer, J. E., Leary, M. R., & Neberich, W. (2012). Big two personality and big three mate preferences: Similarity attracts, but country-level mate preferences crucially matte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8*(12), 1579-1593.
- Ghaed, S. G., & Gallo, L. C. (2006). Distinctions among agency, communion, and unmitigated agency and communion according to the interpersonal circumplex, five-factor model, and social-emotion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6*(1), 77-88.
- Gordon, L. V. (1960). *Survey of interpersonal values*. Chicago, IL: Science Research Associates.
- Gove, W. R. (1984). Gender differences in mental and physical illness: The effects of fixed roles and nurturant roles. *Social Science & Medicine, 19*(2), 77-91.
- Gregg, G. S. (1991). *Self-representation: Life narrative studies in identity and ideology*. Greenwood Press.
- Guisinger, S., & Blatt, S. J. (1994). Individuality and relatedness: Evolution of a fundamental dialectic. *American Psychologist, 49*(2), 104-111.
- Helgeson, V. S. (1990). The role of masculinity in a prognostic predictor of heart attack severity. *Sex roles, 22*(11-12), 755-774.
- Helgeson, V. S. (1993). Implications of agency and communion for patient and spouse adjustment to a first coronary ev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5), 807-816.
- Helgeson, V. S. (1994). Relation of agency and communion to well-being: Evidence and potential explan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16*(3), 412-428.
- Helgeson, V. S., & Fritz, H. L. (1998). A theory of unmitigated commun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2*(3), 173-183.
- Helgeson, V. S., & Fritz, H. L. (1999). Unmitigated agency and unmitigated communion: Distinctions from agency and commun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3*(2), 131-158.
- Helgeson, V. S., & Fritz, H. L. (2000). The implications of unmitigated agency and unmitigated communion for domains of problem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68*(6), 1031-1057.
- Helmreich, R. L., Spence, J. T., & Wilhelm, J. A. (1981). A psychometric analysis of the Personal Attributes Questionnaire. *Sex Roles, 7*, 1097-1108.
- Hermans, H. J., Kempen, H. J., & Van Loon, R. J. (1992). The dialogical self: Beyond individualism and rationalism. *American Psychologist, 47*(1), 23-33.
- Hogan, R. (1983). A socioanalytic theory of personality. In M. Page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pp. 336-355). Lincoln, N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Horwitz, A. V., & White, H. R. (1987). Gender role orientations and styles of pathology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8*(2), 158-170.
- Hoyt, M. A., & Stanton, A. L. (2011). Unmitigated agency,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men with cancer. *Journal of Personality, 79*(2), 259-276.
- Jin, L., Van Yperen, N. W., Sanderman, R., &

- Hagedoorn, M. (2010). Depressive symptoms and unmitigated communion in support provider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4*(1), 56-70.
- King, L. A., & Noelle, S. S. (2005). Happy, mature, and gay: Intimacy, power, and difficult times in coming out stori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9*(2), 278 - 298.
- King, L. A., & Raspin, C. (2004). Lost and found possible selves, subjective well-being, and ego development in divorced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72*(3), 603-632.
- King, L. A., Scollon, C. K., Ramsey, C., & Williams, T. (2000). Stories of life transition: Subjective well-being and ego development in parents of children with Down syndrom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4*(4), 509-536.
- Kirtley, M. D., & Weaver, J. B. (1999). Exploring the impact of gender role self-perception on communication style. *Women's Studies in Communication, 22*(2), 190-209.
- Leeper, C. (1987). Agency, communion, and gender as predictors of communication style and being liked in adult male-female dyads. *Sex Roles, 16*(3-4), 137-149.
- Lippa, R. (1991). Some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of gender diagnosticity measures: Reliability, validity, consistency across domains, and relationship to the Big F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6), 1000-1011.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 Martin, R. A., Puhlik-Doris, P., Larsen, G., Gray, J., & Weir, K.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uses of humor and their relation to psychological well-being: Development of the Humor Styles Questionnair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7*(1), 48-75.
- McAdams, D. P. (1988). *Power, intimacy, and the life story: Personological inquiries into identity*. New York, NY: Guilford Press.
- McAdams, D. P. (1995). What do we know when we know a person? *Journal of Personality, 63*(3), 365-396.
- McAdams, D. P., de St Aubin, E. D., & Logan, R. L. (1993). Generativity among young, midlife, and older adults. *Psychology and Aging, 8*(2), 221-230.
- McAdams, D. P., Hoffman, B. J., Mansfield, E. D., & Day, R. (1996). Themes of agency and communion in significant autobiographical scenes. *Journal of Personality, 64*(2), 339-377.
- McAdams, D. P., Ruetzel, K., & Foley, J. M. (1986). Complexity and generativity at midlife: Relations among social motives, ego development, and adults' plans for the fu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4), 800-807.
- McCreary, D. R., & Steinberg, M. (1992). The personal attributes questionnaire in Britain: Establishing construct validity.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1*(4), 369-378.
- Mosher, C. E., & Danoff-Burg, S. (2005). Agentic and communal personality traits: Relations to attitudes toward sex and sexual experiences. *Sex Roles, 52*(1-2), 121-129.

- Mosher, C. E., & Danoff-Burg, S. (2008). Agentic and communal personality traits: Relations to disordered eating behavior, body shape concern, and depressive symptoms. *Eating Behaviors, 9*(4), 497-500.
- Nix, J., & Lohr, J. M. (1981). Relationship between sex, sex-role characteristics and coronary-prone behavior in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Reports, 48*(3), 739-744.
- Olejnuk, A. B., Tompkins, B., & Heinbuck, C. (1982). Sex differences, sex-role orientation, and reward allocations. *Sex Roles, 8*(7), 711-719.
- Park, S. W., & Colvin, C. R. (2014). Narcissism and discrepancy between self and friends' perceptions of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82*(4), 278-286.
- Parsons, T., & Bales, R. F. (1955). *Family,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 Glencoe, IL: Free Press.
- Paulhus, D. L., & John, O. P. (1998). Egoistic and moralistic bias in self-perceptions: The interplay of self-deceptive styles with basic traits and motives. *Journal of Personality, 66*(6), 1024-1060.
- Payne, R. (1987). Individual differences and performance among R and D personnel: Some implications for management development. *R&D Management, 17*(3), 153-161.
- Saragovi, C., Aubé, J., Koestner, R., & Zuroff, D. (2002). Traits, motives, and depressive styles as reflections of agency and commun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5), 563-577.
- Saragovi, C., Koestner, R., Di Dio, L., & Aubé, J. (1997). Agency, communion, and well-being: Extending Helgeson's (1994)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3), 593-609.
- Schwartz, S. H. (1992). Universal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Theory and empirical tests in 20 countries. In M.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pp. 1-65). New York, NY: Academic Press.
- Smith, T. W., Traupman, E. K., Uchino, B. N., & Berg, C. A. (2010). Interpersonal circumplex descriptions of psychosocial risk factors for physical disease: Application to hostility, neuroticism, and marital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78*(3), 1011-1036.
- Snell, W. E., Belk, S. S., & Hawkins II, R. C. (1987). Alcohol and drug use in stressful times: The influence of the masculine role and sex-related personality attributes. *Sex Roles, 16*(7-8), 359-373.
- Spence, J. T. (1984). Masculinity, femininity, and gender-related traits: A conceptual analysis and critique of current research. In B. A. Maher & W. B. Maher (Eds.), *Progress in experimental personality research* (pp. 1-97).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Spence, J. T., Helmreich, R. L., & Holahan, C. K. (1979). Negative and positive components of psychological masculinity and femininity and their relationship to self-reports of neurotic and acting out behavi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10), 1673-1682.
- Spence, J. T., Helmreich, R. L., & Stapp, J. (1974). The Personal Attributes Questionnaire: A measure of sex role stereotypes and masculinity-femininity. *Journal Supplement*

- Abstract Service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4, 43.
- Spence, J. T., Helmreich, R. L., & Stapp, J. (1975). Ratings of self and peers on sex role attributes and their relation to self-esteem and conceptions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1), 29-39.
- Thornton, V., & Nagurney, A. (2011). What is infidelity? Perceptions based on biological sex and personality. *Psychology Research and Behavior Management*, 4, 51-58.
- Trapnell, P. D., & Paulhus, D. L. (2012). Agentic and communal values: Their scope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4(1), 39-52.
- Verbrugge, L. M. (1985). Gender and health: An update on hypotheses and evidenc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8(3), 156-182.
- Vogt, D. S., & Colvin, C. R. (2003). Interpersonal orientation and the accuracy of personality judgments. *Journal of Personality*, 71(2), 267-295.
- Von der Lippe, A. L. & Torgersen S. (1986). Agency and communion in mothers related to parnatal adaptation, fathers' personality and the marriage.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27(1), 266-276.
- Ward, L. C., Thorn, B. E., Clements, K. L., Dixon, K. E., & Sanford, S. D. (2006). Measurement of agency, communion, and emotional vulnerability with the personal attributes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8(2), 206-216.
- Watts, B. L., Messé, L. A., & Vallacher, R. R. (1982). Toward understanding sex differences in pay allocation: Agency, communion, and reward distribution behavior. *Sex Roles*, 8(12), 1175-1187.
- Weiss, M., Kolbe, M., Grote, G., Dambach, M., Marty, A., Spahn, D. R., & Grande, B. (2014). Agency and communion predict speaking up in acute care teams. *Small Group Research*, 45(3), 290-313.
- Wiggins, J. S. (1991). Agency and communion as conceptual coordinates for the understanding and measurement of interpersonal behavior. In D. Cicchetti & W. M. Grove (Eds.), *Thinking clearly about psychology: Essays in honor of Paul E. Meehl* (pp. 89 - 113).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Wiggins, J. S., & Trapnell P. D. (1996). A dyadic-interactive perspective on the Five-Factor Model. In J. S. Wiggins (e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Theoretical perspectives* (pp. 88-162). New York, NY: Guilford.
- Wojciszke, B. (1994). Multiple meanings of behaviour: Construing actions in terms of competence or mor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2), 222 - 232.
- Wojciszke, B., Bazinska, R., & Jaworski, M. (1998). On the dominance of moral categories in impression form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12), 1251-1263.
- Ybarra, O., Chan, E., & Park, D. (2001). Young and old adults' concerns with morality and competence. *Motivation and Emotion*, 25(2), 85-100.
- Zeldow, P. B., Clark, D., & Daugherty, S. R.

(1985). Masculinity, femininity, Type A behavior, and psychosocial adjustment in medical stud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2), 481-492.

1차원고접수 : 2016. 02. 16.

수정원고접수 : 2016. 05. 27.

최종게재결정 : 2016. 06. 13.

Agency and Communion: Two Fundamental Dimensions of Human Existence

Yoonyoung Kim Yeeun Lee Min Joo Joo Yoobin Park Sun W. Park

Korea University

A considerable amount of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concepts of agency and communion over the past few decades overseas, as reflected in three special issues in academic journals. However, these concepts are barely introduced to the psychology literature in Korea. In the present article, we presented an organized overview of the so-called "Big Two" which has triggered research on various topics across different fields of studies. First, we introduced different measurements to assess agency and communion. We then explained how these two are related to mental health, physical health, and social relationships. In doing so, we organized studies depending on whether they included the concept of unmitigation. Next, we reviewed narrative studies and how agency and communion themes in narratives are related to psychological well-being. We also detailed the dual perspective model of agency and communion, an approach based on social cognition research. This model uses the two concepts to explain the actor-observer discrepancy in social interactions. Finally, we summarized studies done in Korea about agency and communion, and discussed the future directions of research.

Key words : agency, communion, big two, narrative, dual perspective model of agency and communion